

가변어

可變語

연관 활용, 불변어

가변어는 모양이 변할 수 있는 단어들을 지칭하는 말로, 형용사, 동사와 같은 용언과 조사 중 서술격 조사가 이에 해당된다. '예쁘다'라는 형용사는 '예쁘니, 예쁘고, 예뻐서'와 같이 단어의 뒷부분이 변할 수 있으므로 가변어라 할 수 있다. 동사인 '가다'도 '가고, 가니, 가서'와 같이 모양이 변하므로 가변어에 속한다. 서술격 조사인 '이다'도 '이고, 이니, 이어서'와 같이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가변어이다. 이렇게 단어의 모양이 변하는 현상을 '활용'이라 하며,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양이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사과'라는 명사는 단어의 뒷부분이 '사자'와 같이 변하면 '사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어가 된다. 하지만 가변어는 '가다, 가고, 가니, 가서'와 같이 모양이 변하더라도 모두가 'go'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므로 한 단어이다.

'사과'를 '사과가, 사과를, 사과는'과 같이 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가, 를, 는'과 같은 조사를 하나의 단어로 보고 있으므로, 한 단어 안에서 모양이 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사과가'는 '사과'와 '가'라는 두 단어가 결합한 것이며, '사과를'은 '사과'와 '를'이 결합한 것이므로 '사과가'와는 다른 두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업 고민 이렇게 해결해요!

수업 고민

학생들이 품사를 나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의미에 따른 기준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품사의 종류를 물어볼 때도 명사, 대명사, 수사 등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 품사만 나열합니다.

해결 방안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품사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려 주기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한 대상이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성별로 분류하면 '여자', '학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1학년'이 된다는 것을 알려 주면서 하나의 대상이 기준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품사도 형태에 따라서는 '가변어, 불변어'로 나뉘고,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뉘며 의미에 따라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품사를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품사의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 어때요?

활동 내용

품사 게임

활동 방법

- ① 한 장에 한 단어씩 적힌 카드를 학생 수×7장 만들기(학생이 5명일 경우 총 35장)
- ② 학생 한 명당 카드 5장씩 갖기
- ③ 임의로 카드 한 장 뽑아 바닥에 놓기
- ④ 바닥에 놓인 카드의 단어를 보고, 그 단어와 품사가 같은 단어가 적힌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카드 내려놓기
- ⑤ ③, ④를 반복하며 카드 빨리 소진하기

문법적 개념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게임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한 장에 한 단어씩 쓰인 카드를 학생 수×7장을 만듭니다. 어떤 단어를 적을지 큰 부담은 안 가져도 됩니다. 근처에 있는 책을 펼쳤을 때 보이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만 취합해도 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 한 명당 카드 5장씩을 나눠 주고, 임의로 카드 한 장을 뽑아 바닥에 놓습니다. 바닥에 놓인 카드의 단어와 학생이 들고 있는 카드의 단어가 품사가 같으면 그 학생은 자신의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들고 있는 카드를 가장 빨리 소진하는 학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바닥에 놓인 카드의 단어와 품사가 같은 단어의 카드를 그 누구도 들고 있지 않아 게임 진행이 어려울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닥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숫자와 학생이 들고 있는 카드의 숫자가 동일하면 그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한시적 룰을 적용합니다. 단, 숫자가 동일해서 카드를 내려놓을 때는 그 카드에 적힌 단어의 품사를 학생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품사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품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중간중간에 책 들춰 보기 찬스, 친구에게 카드 미루기 찬스 등과 같은 특별한 찬스 카드를 섞어 두어 게임의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질문에는 이렇게!

- Q 여간과 어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활용, 즉 가변어의 모양이 바뀔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여간이고, 바뀌는 부분이 어미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바꿔 보면서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면 됩니다. ‘가다, 가고, 가서’와 같이 모양이 바뀔 때, 변하지 않는 ‘가-’ 부분이 여간이고, ‘-다, -고, -서’ 부분이 어미입니다. 다른 단어들에 적용할 때도 ‘-고, -아서/-어서’를 적용해 보면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혹 활용할 때 어간 부분이 바뀌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형에서 어미 ‘-다’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쉽습니다. 예를 들어 ‘긋다’는 ‘긋다, 긋고, 그어서’와 같이 활용하는데, ‘긋다’와 ‘긋고’를 보면 어간을 ‘긋-’으로, ‘그어서’를 보면 어간을 ‘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이므로 어간이 다를 수 없으니, ‘-아서/-어서’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연결했을 때가 아닌, 가장 기본형인 ‘긋다’에서 어미 ‘-다’를 제외한 ‘긋-’을 어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기본형이 뭐예요?

A 기본형은 사전에 등재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다’는 사전에 있지만, ‘가고’나 ‘가서’는 사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어간에 평서형 종결 어미인 ‘-다’가 붙고, 시제가 현재 시제인 것이 기본형입니다. 따라서 ‘가다’가 기본형이지, 과거형인 ‘갔다’는 기본형이 아닙니다.

❖ 안성중학교 안샘지니 선생님